

New Leader 11.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때!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창세기 9:11-13]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 땅의 복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후에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노아 가정의 이야기이다. 홍수 심판의 의미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다. 죄악의 관영함으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곳에 대한 심판이다.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 사람들과 언약한 땅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8: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아담과 한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은 '생육, 번성'하는 축복의 땅이다. '생육'은 (파라)라고 한다. 의미는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라는 뜻이다. 가장 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뿌린 것에 대한 결실과 열매가 있는 인생일 것이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인생의 농사를 결실한 것일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결실'이 있다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다.

'번성'은 '증가되다. 확장되다'라는 뜻이다. 좋은 일은 언제나 30,60,100배의 결실로 증가되고 확장된다. 축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증가시키셨고, 확장 시키셨다. 넘쳐나고 확장되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다. 내가 있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노아를 통해 다시 회복하신 것이다.

2. 새로운 시작

새 땅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복은 선명하다. 그런데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것도 없다. 알겠는데 막막하다. '막막함'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함이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을 때가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한 기회이고, 시작이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리셋되고, 이제 주님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 '결단'하는 성도 - 우리는 자주 결단을 한다. 결단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이다. 잘못된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제 결단했으니 새롭게 나아가야지'라고 마음 먹는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내가 만약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라면, 리더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3. 새로운 시작 - 예배

[창세기 8:20-21] 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보면, 노아가 막막한 새 땅에서 한 처음 행동은 '예배'였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노아가 먼저 한 것은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what, how'를 먼저 생각한다. 새로운 메뉴얼을 만드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사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what과 how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why에 대한 물음이다. why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why는 의미와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예배하는 행동보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다. why는 what, how를 견고히 해주는 기초와 같다. why 위에 세워진 일들은 그래서 튼튼하다. 견고하다. 분명하다. 명확하다.

하나님은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그 향기를 받으시고(21절), 왜 노아 가족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은 그전과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한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이유이다.

(1) 데스티니

예배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좌표를 분명히 알게 된다. 내 인생의 좌표를 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아가 새로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 홍수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복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다른 일이 아니다. 노아의 데스티니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결국,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돌파와 시작은 'why'를 점검할 때이다. 그때 데스티니가 분명해진다. '맞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나를 불렀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야. 이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이 내 소명이야, 데스티니야를 확인하는 것이다.'

(2) 멍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멍'으로 나타난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멍한 상태를 '멍 때리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멍하다'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을 말한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도전은 '데스티니'가 없다는 것이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었다. 그래서 '멍한 상태'가 많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계획도 세울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너 뭐하고 있어?'라고 물으면 '아니 그냥 멍 때리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고통스럽다는 말이다. 노아는 아마도 새 땅에 도착해서 '멍'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이다.

4. 새로운 언약

[창세기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배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가 해야 할 일을 두 번 더 반복하신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복을 노아와 '언약'하신다. 거듭난 우리들 안에 이미 땅의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안에 이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언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다.

[창세기 9:9-10] 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 언약 (베리트)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이다. 구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트'(berith)는 '끊는다'는 어원인데, 이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절단하여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구약에 세 가지의 언약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삼상18:3-4),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겔17:13-14),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등이다. 이중 하나님과 사람간에 맺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은혜로운 약정이었다. 그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수혜자가 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약속이다. (두란노 성경사전)

하나님과 언약은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새로운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 전, 막막함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언약'이다.

'맞다. 나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바로 그 확신이 우리 마음 안에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 막막함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한다.

[예레미야 34:18] 송아지를 둘로 찢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창세기 15: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은 '고기를 둘로 쪼개다'라는 뜻이다. 언약을 맺은 주체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언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하나님 스스로만 지나가신다. 즉,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다.

(2) 새 언약 -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2:20]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말씀하셨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행 10:43; 롬 11:27) 죄악이 기억되지 않으며, 구원을 받는다.

5. 언약의 확신 - 무지개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은 언약으로부터이다. 막막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아니면 잠시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이다. 우리를 위해 피로 세우신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창세기 9:13-15]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징표로 무지개를 보이셨다.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증표이다. 요즘 무지개를 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모두가 감동을 받는다. 맞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선명하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과거를 보지 말고, 앞을 보며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라. '예배'로 시작하면 '언약'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 그것만 확인하자. 할렐루야.